

김용석 대광위원장, 국민 체감형 교통기술 개발 강조

- 게이트프리 결제시스템 등 민생과 밀접한 기술개발 점검 및 실용화 논의

- 국토교통부(장관 김윤덕)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(이하 “대광위”) 김용석 위원장은 1월 29일 경기 의왕시 소재 한국철도기술연구원(원장 사공명, 이하 “철도연”) 본원을 방문해 광역교통 혁신 기술 개발 현황을 점검하고, 도시철도 정책 지원 강화를 위한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.
- 먼저, 김 위원장은 철도연으로부터 열차자율주행 등 그간 R&D 현황과 함께 열차 자율주행, 디지털 트윈 기반 교통 시설·차량 자동 유지보수 기술 개발 등 향후 추진과제를 보고받았다.
 - 이 자리에서 김 위원장은 “광역교통 R&D의 핵심은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출퇴근 시간 단축과 교통 편의 향상”이라며, “철도연의 첨단 기술이 국민 민생에 좀 더 밀접하고 신속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해달라”고 당부했다.
- 이어 김 위원장은 철도연의 주요 연구 시설인 게이트프리 결제시스템 실험실, 열차자율주행 실험실과 하이퍼튜브 실험실 등을 방문하여 미래 모빌리티 기술 개발 현장을 직접 점검했다.
- 점검을 마친 후 김 위원장은, “게이트프리 결제시스템은 국민들이 대중 교통 이용 시 별도의 카드 접촉 없이 요금 결제 가능하여 탑승 편의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것으로 기대”된다고 하며, “이러한 미래 모빌리티 기술은 광역교통의 패러다임을 바꿀 게임 체인저가 될 것”이라 밝혔다.
 - 이어 “대광위는 철도연과 같은 전문 연구기관과 원팀이 되어 국민의 일상을 혁신하는 광역교통망을 완성해 나가겠다”고 덧붙였다.

담당 부서	광역교통운영국 광역시설정책과	책임자	과 장 안광열 (044-201-5100)
		담당자	사무관 조계환 (044-201-5102)